

'익산 전통시장이 젊어진다'

복합 청년몰 조성, 먹거리 점포·서비스업 등 17개 점포 구성... 8월 오픈 목표

익산시가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복합 청년몰을 조성한다.

청년몰이 완공되면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인재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8월 오픈을 목표로 중앙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시장 복합 청년몰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놀이공간, 상인과 고객들이 쉬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구성된 원소통 복합 청년몰로 시와 복합



청년몰 사업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조성한다.

연면적 961.81㎡에 1~2층 루프탑으로 조성되며 1층에는 8개의 특색있는 먹거리 점포 2층에는 9개의 서비스업 부대시설 등 총 17개 점포가 들어선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했으며

이달 말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후 5월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청년 상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사업단과 지역 청년단체의 1차 간담회에 이어 20일 2차 간담회를 현장에서 개최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청년몰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청년몰 성공사례들을 참고해 탄탄한 점포 구성과 상인 모집 컨설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며 "청년몰 조성으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젊음과 상생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관광객 유치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

관광 안내 서비스 전면 재개

군산시, 관광해설 서비스... 관광객 유치 박차

군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전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 시간 집회 및 행사 인원 등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해설사 운영지침 일부 적용 유예에 따라 관광 안내 및 해설 서비스를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계도 활동 위주로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구 시청광장에 위치한 시간여행마을 관광안내소 등 관광안내소 8개소를 부분적으로 운영해 왔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관광안내소 8개소를 전면 개방하고, 거리두기 홍보·계도 활동을 수행하던 문화관광해설사 39명도 관광객 대상 해설업무를 전면 재개한다.

이에 따라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시청 문화관광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여행 해설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정규영 관광진흥과장은 "그간 부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관광 해설의 전면 재개에 따라 단체 관광객은 물론 소규모 개별 관광객들의 관광해설에 따른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경증치매환자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상반기 컴퓨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경증치매환자의 인지능력 악화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적 교류 증진과 독립성 유지를 목표로 한다.

경증치매란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CDR복도 검사결과 1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접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한다.

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자 수를 축소 운영해 1년간 15명 대상, 3개반으로 98회 운영했다.

이용자에 대해 운영 전·후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SGDS-K)를 실시한 결과 상·하반기 평균 31%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만족도도 높게 조사됐

다.

치매관리사업 전용공간인 치매안심센터를 지난해 새단장에 나뉘는 데 소한 만큼, 올해에는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프로그램 분반을 늘려 이용자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 서비스 미신청자이거나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인지지원등급자에 한하며 1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을 희망하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외출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환자센터 및 인지강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정책개발의 선두주자 '2030 정책기획단' 가동

익산시, 2030 세대 시선으로 바라본 익산시 현안 논의

창의적인 정책 발굴로 지역 발전을 이끌 익산 2030 정책기획단이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19일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오택립 익산시장 권한대행과 정책기획단 27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2030 정책기획단 출범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제8기 2030 정책기획단은 관광, 도시 인프라, 산업경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신규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발대식은 2030 정책기획단 개요와 신

규사업 발굴 방법 설명 등을 시작으로 분과별 소개 및 분과별 회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처음 마주한 단원들은 신규 정책과 사업발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등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다

시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전문가 자문과 특강 각 분과회의 등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켜 오는 11월 최종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발표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분과와 우수제안자에게는 공무국의 연수와 시장포상, 장려분과에게는 공무국 내연수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17년부터 운영돼 올해 6년 차인

2030 정책기획단은 지난 5년 동안 익산의 발전을 위해 총 60여 건이 넘는 신규 정책을 제시하고 시장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2030 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트렌디한 아이디어와 20~30년 공직 생활의 경험을 가진 4050 세대 멘토 공무원들의 정책 전문성을 결합한 교화성장(教化成長)의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오택립 시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장발전을 위해 정책기획단에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며 "지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정책과 특히 2030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활동비 지원 확대

익산시는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책임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인당 연간 24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한다

특히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지원 대상자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달 말부터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월 20시간 근무 시'로 변경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에서 '시설장 사무원 조라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비 지원 확대 시행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비 지원을 위해 시비 18억6000만원이 투입되며 노인요양복지시설 51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76개소 종사자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활동비 대상자 확대 시행으로 인해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확인 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분기별 활동비 지원이 시작된다.

시 관계자는 "활동비 대상자 확대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과 이용자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익산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서수면 신장마을 개조사업 본격 시행

군산시는 서수면 신장마을에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공모 선정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배수시설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사업과 더불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도 포함된다.

시는 기본 및 실시계획영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한 착공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시는 육산면 외위마을을 대상으로 예비계획 수립 등 공모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읍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익산시는 읍면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의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고 반려견의 유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성화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에서 사육되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는 반드시 식별이 가능한 내장형 칩을 삽입하고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된 7개소의 동물병원과 사전에 약협의 등 후 반려견과 동행하면 된다.

수술비용은 1가구당 3마리까지 지원되며 선정된 가구는 마당 동물 등록 수수료 1만원과 중성화 수술 비용의 10%, 최대 3만1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사육·서식 장소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으며, 연령·소득 등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